인천불교총聯 제32대 회장 능해스님 취임식

11월 29일 인천 용궁사서 봉행…500여명 참석해
능해 스님 "청소년, 다문화, 지역포교 등에 앞장설 터"

인천 용궁사=김주일 기자



인천불교총연합회 제 32대 회장으로 취임한 능혜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의 인천불교총연합회 제 32대 회장 취임식이 11월 29일 영종도 국제도시 인천 용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인천불교총연합회 상임고문 법륜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혜일 스님, 인천불교총연합회 고문 대은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계성 스님 등 각 불교계 원로 스님들을 비롯해 배준영 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능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회원들간의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 종파를 초월해 일불제자로서 승가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구감소와 결혼기피, 출산 감소 등 우리의 사회문화는 다양한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놀이문화의 확산 등 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럴때일수록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한다. 다양한 포교 문화를 통해 불자들을 늘리는데 우리 연합회가 한데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능해 스님은 "우리 연합회가 각 사찰의 어려운 문제들을 앞장서서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등대지기 역할을 하겠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례화 해서 체계적인 불교교육과 홍법의 초석을 다져서 청소년들이 불자로 성장하는데 연합회가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세계는 한가족 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문화 가정을 불자화 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이번에 회장에 취임한 능해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종정예경실장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현재는 총무원 재경부원장 등을 맡아 종단 운영과 발전에 진력하고 계신다. 또한 이곳 천년고찰 용궁사를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우뚝 세웠다"며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는 용궁사 성역불사를 시작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76호인 수월관음도를 보수해 모시는 등 이운 봉안법회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대웅보전을 새로 건립해 중창불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치하했다.

한편 인천불교총연합회는 16개 종단 380여 사찰이 손잡은 인천 최고의 불교연합이자 지역의 대표단체로 75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인천불교총연합회는 7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가든에서 치러진 제 32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능해 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현재 영종도 용궁사 주지인 능해 스님은 1975년 출가해 박서봉 스님에게 사미계를, 안덕암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을 졸업한 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파라미타 환경보호감시단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 한국불교문화예술사 연구회 총무이사, 인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재임중이다.

범어사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범어사 소장본 등 3종 등재 결정
삼국유사 소장 사찰, 범어사 유일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 표지.

고려시대 고승 일연 스님 편찬한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해 6월 등재 신청한 〈삼국유사〉와 〈내방가사〉,〈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에서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으로 26일 최종 등재됐다"고 밝혔다.

〈삼국유사〉는 1281년 일연(1206~1289) 스님이 편찬한 역사서로, 한반도의 고대신화를 비롯하여 역사, 종교, 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에 등재된 〈삼국유사〉 기록물은 '범어사 소장본(범어사성보박물관 소장)'을 비롯한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등 총 3종이다.

〈삼국유사〉 범어사 소장본은 1394년에 목판을 찍어 만든 조선 초기본으로 현존본 중 가장 빠르고 다른 판본들과 달리 구결이 들어있으며 판각상태가 뛰어나 인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권5의 시작 부분에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인 경북 군위 '인각사(麟角寺)'와 저자 '일연(一然)'이 표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는 점에서도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사찰에서는 범어사가 유일하게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유네스코 아 · 태 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삼국유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 교육, 기념행사 및 자료발간 등 학술적인 연구와 활용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기록유산 〈삼국유사〉를 매개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2016), 만인소(2018), 조선왕조 궁중현판(2018) 등 3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국유사〉등 3건이 추가 등재됨으로써 아태 기록유산은 총 6건으로 늘었다. 신성민 기자

강화 묘지사지서 고려 온돌 건물지 확인

강화문화재硏 평탄지 조사 발견
'대몽항쟁' 강화도 천도기 추정
13세기 온돌 문화 확인할 유구


강화 묘지사지 건물지 근경. 이곳에서 고려 강화 천도시기 대형 온돌 건물지가 확인됐다.

강화 묘지사지에서 고려시대 대형 온돌 건물지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고려 강도시기 사찰 유적인 강화 묘지사지(妙智寺址)에서 대형 온돌 건물지를 확인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강도시기(江都時期)는 몽골 침략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고종 19년)부터 1270년(원종 11년)까지 시기를 의미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묘지사는 1264년(고려 원종 5년) 왕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제(醮祭, 무속이나 도교에서 별을 향해 지내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거처했던 사찰로, 마니산 동쪽의 초피봉 남사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지사지는 산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2개의 평탄지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상단 평탄지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온돌 건물지를 처음 확인했다.

건물지는 동서 너비 16.5m, 남북 길이 6.3m의 5칸×2칸 규모로, 남편 기단 양쪽 측면부가 앞으로 돌출된 구조다. 온돌은 동편 일부를 제외한 방 전체에 시설됐는데, 방 양쪽에 온돌이 각각 분리되어 설치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온돌의 아궁이는 건물지의 동쪽 칸 및 서쪽 돌출부에 조성돼 있다. 아궁이를 통해 유입된 화기가 각각 3줄 및 2줄의 고래를 통해 방 전체를 'ㄷ' 형태로 회전하면서 방을 덥힌 다음 북편 기단 외곽의 배연구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됐다. 특히 온돌방에 설치된 고래와 고래둑은 너비 40~60㎝, 고래둑 위에 얹어진 구들장은 길이 70~120㎝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 온돌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방 전체에 온돌을 시설한 전면온돌은 대체로 고려 후기부터 등장해 정착된 것으로 여겨지나, 이 시기의 구조가 명확한 대형 온돌 건물지는 확인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에 조사된 온돌 건물지는 13세기대 전면온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온돌 구조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급 유물 출토 '흥전리사지' 사적 지정

문화재청 11월 28일 지정공고
발굴서 '국통' 등 비편 출토돼
당시 위세 높았던 巨刹로 추정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출토된 '국통(國統)' 명 비편. 당시 사찰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유물이다.

삼척 지역을 대표하는 산지 가람이자 신라 승관사찰로 추정되는 '삼척 흥전리 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흥전리 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문화재청이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실시한 '중요 폐사지 시 · 발굴조사'를 통해 조명된 유적이다.

2014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9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 인주까지 함께 남아 있는 인주함, 금동번 투조장식판, 금동사자상 등 지금까지 사찰 유적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유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삼척 흥전리 사지'가 통일신라후기~고려전기에 강원도 동부지역의 유력한 선종사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물인 '국통(國統, 신라시대 국왕의 고문 역할을 한 승려를 지칭)', '대장경(大藏經)' 글자가 새겨진 비석조각과 '범웅관아(梵雄官衙)' 글자가 새겨진 청동관인 등이 출토됐다. 범웅관아 관인에서 범웅(梵雄)은 '석가모니', '부처'를 의미하며, 관아(官衙)는 승관(僧官)을 뜻해 삼척 흥전리 사지가 신라 승관사찰임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삼척 흥전리 사지는 그동안 문헌으로만 확인되었던 신라 승관제도를 유구와 유물을 통해 실증하는 유적으로 지방 세력을 견제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신라의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통일신라~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뛰어난 예술성과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출토유물들이 있으며, 다원식 공간 배치와 다양한 형태 및 시설을 갖춘 건물지들은 고대 산지가람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여 미술사 · 건축사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신임 불교학연구회장에 남수영 교수

11월 19일 정기총회서 선출
"젊은 불교학자 발굴 · 지원"



불교학연구회 제13대 회장에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남수영 교수를 선출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남수영 신임 회장은 "한국 역사는 불교를 빼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인의 삶과 인생도 불교를 빼고 설명하기는 힘들다"며 "저는 제 삶과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했다. 이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 공부는 방대하며 혼자서는 폭넓은 분야를 연구할 수 없다"며 "학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자란 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우리 불교학연구회가 유지되고 발전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2년동안 젊은 학자들 지원 등에 진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임기 동안 임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전공 분야의 불교학자들에게 공평하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있는 젊은 학자들을 발굴하겠다"면서 "학자들에게 열린 학문 ·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회장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청주대 철학과 외래교수와 동경대 문학부 연구원,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동국대 인도철학과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중관사상의 이해(2015)〉〈중관학파의 실유비판 연구(2007)〉〈고려대장경 해제(1998)〉〈공과 중관(2015)〉〈용수의 중관사상(2010)〉〈용수의 공사상 연구(1999)〉〈힌두이즘(1996)〉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중관학파에서 무상정등각의 성취(2018)'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 재검토(2017)'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능인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신설

11월 22일 교육부서 승인해
신입생 모집…전액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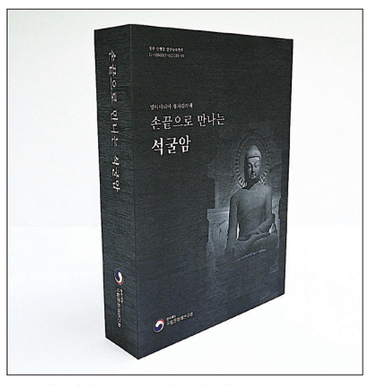
능인대학원대학교(총장 지광)에 박사 과정이 신설됐다.

능인대학원대학교는 "11월 22일 교육부로부터 2023학년도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불교학과(불교학 · 전법학 · 불교의례학 · 불교문화학), 명상심리학과(명상상담 · 임상 및 상담심리)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능인대학원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석사과정 30명, 박사과정 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능인대학원대학교 총장 지광 스님은 "우리 학교의 박사과정 설치 신청이 드디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제 능인대학원대학교는 석사와 박사과정을 온전히 갖추며 명실상부한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시각장애인 위한 '석굴암 점자책'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원, 점자 감각책 · 촉각 교구 개발
전국 점자도서관, 맹학교 배포
"시각장애인 문화 향유에 도움"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주제로 한 점자감각책 〈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

시각장애인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을 체험할 수 있는 점자책과 촉각 교구가 개발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 이하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주제로 점자 감각책 〈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과 입체 촉각 교구를 제작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뛰어난 예술성과 건축 기술, 그리고 국제성을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점자 감각책 〈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은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인 故 한석홍 작가가 촬영한 석굴암 대표 사진의 주요 조각상과 쉽고 흥미롭게 풀어쓴 석굴암 이야기를 손끝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 점화와 점자로 나타냈다. 또한, 소리펜과 QR코드를 이용해 성우의 음성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석굴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손끝으로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3D 스캔과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입체 촉각 교구도 함께 제작했다. 입체 촉각 교구는 단단한 화강암을 네모난 석판으로 만들고 조각한 후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석굴암의 건축적 특징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석굴암 3D 입체 모형'과 석굴암의 재료인 화강암 재질의 촉감을 생생하게 재현한 '본존불'과 '십일면관음보살'의 얼굴 부조상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은 이번에 제작한 점자 감각책은 내년 1월 중 국내 점자 도서관 210곳에 배포하고, 점자 감각책과 촉각 교구 세트는 전국 맹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 폭넓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겨울호…'현대 중국불교' 특집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2022년 겨울호(통권 92호)가 발간됐다.

2022년 겨울호는 특집으로 '현대 중국불교의 현실과 전망'을 다뤘다. 이번 중국불교 특집에서는 전문 학자 5명이 중국특색사회주의로 일컬어지는 체제와 불교가 어떻게 공존을 모색해왔는지, 앞으로 중국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갈지 전망했다. 특집 논문에는 △문화대혁명 이전 사회주의 중국의 불교(김영진) △문화대혁명과 중국불교(서대원) △마르크스주의와 불교 그리고 그 이후(지혜경) △중국공산당 불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현재(강경구) △현대 중국불교의 발전을 이끈 불교인들(전영숙) 등이 수록됐다.

'세계의 불교학자'에서는 유럽 불교학자로는 드물게 정통불교도의 길을 걸으며 빨리어 경전 번역에 일생을 바친 칼 오이겐 노이만을 소개하며, '나의 삶 나의 불교'에서는 〈고승열전〉을 집필하는 등, 대표적인 방송작가로 잘 알려진 윤청광 선생의 회고담을 실었다.

이번 겨울호의 '불교소설'은 중견 소설가 이원규 씨의 단편 〈환상방황(環狀彷徨)〉이 게재됐다. 소설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신적 고뇌를 그려, 전쟁의 비극이 초래하는 종교적 모순을 인간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신성민 기자